

아동의 친구관계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Childhood

장재숙(Jae-sook Jang)¹⁾

백경임(Kyung-im Bai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 among mother's rearing attitude in infancy,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childhood by using the longitudinal data origina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KIRBS). Specificall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causal relation among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in infancy,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childhood were examined across a 8-year-period. The subjects were 68 children(38 boys and 30 girls) from the KIRBS longitudinal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rearing attitude in infancy can be consequential environmental variable factor, and children's self-concept do not play an essential intermediate role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in infancy and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childhood. This study used a newly attempted method in the field of Human Development.

Key Words : 양육태도(rearing attitude), 자아개념(self-concept), 친구관계(relationship with friends),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I. 서론

인간은 사회적 집단 안에서 태어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장·발달하고 생활하게 되는데,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Heider (1964)는 대인관계란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지각하고,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

¹⁾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강사

²⁾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im Bai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Kyung-Ju city 780-714, Korea E-mail : pgy@dongguk.ac.kr

를 하는가,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하기를 기대하는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국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llivan(1946)은 개인의 성격 자체를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즉 어떤 개인이 하는 일, 또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의 대인적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이 지닌 모든 불안의 근원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전제를 함축하고 있어 인간의 삶에서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대인관계는 크게 가정 내에서의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더 나아가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유은숙, 2001). 아동의 경우는 다양한 대인관계 중에서도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동기에는 생활의 장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확대되며, 이 때의 환경이 아동에게 다양한 발달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응이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아동기 이후의 대인관계의 틀을 형성해주며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artup & Sancilio, 1986)와 아동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면 그러한 부적응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결과(Bagwell 등, 1998; Patterson, Kupersmith, & Griesler, 1990)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아동의 친구관계는 일생동안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파악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친구관계를 관련변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해주

는 주요 변인으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변인들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먼저,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동은 부모를 통해서 사회화의 기초를 획득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호작용의 양상은 자아개념의 형성 및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의 대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간관계의 근원이 되어온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ullivan(1953) 등은 특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대인관계의 양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권보연, 2000, 재인용), Rogers(1951)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이나 가치는 어린 시절 주변인물과의 상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심리학적으로 잘 적용되었을 때, 자아의 기반이 이룩된다(김지연, 1999, 재인용)고 하여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Rothbard & Shaver(1994)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초기에 갖게 되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는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Goodman, Donna & Brown, 1993; McLoyd, 1990)에서 어릴 때의 부모-자녀 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

관계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초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후 자녀의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자녀의 대인관계 발달에 초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초기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상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의 기억을 통한 측정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편,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함께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해주는 주요 변인으로 아동의 자아개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행동, 동기, 성취 및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3)는 주장과 “아동의 자아 지각(perception of self)은 자신을 대하는 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외면화된다”는 주장(Schaefer, 1987)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각하는 것과 똑같이 타인도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자신을 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개인의 자아개념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자아개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Peplau, Miceli, & Morasch, 1982)는 연구결과와 아동 및 청소년기

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한다(심희옥, 1997; Kahle, Kullka, & Klingel, 1982)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아개념은 대인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범모 · 이성진, 1985)고 볼 때, 가정 내에서의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일부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이렇게 형성된 아동의 자아개념은 다시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아동발달의 주요과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인관계, 특히 아동의 친구관계에는 학령기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형성된 자아개념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인기 인간관계의 초석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아동의 친구관계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아동의 자아개념 두 가지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아동의 친구관계간 직·간접적인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해 주는 주요 변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1975년부터 현재까지 28년간 진행중인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의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친구관계 발달에 대한 시간선상에서의 개인 내 변화를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간 상관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1-1.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9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1-2.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0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1-3.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1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2-1.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9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2-2.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10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2-3.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아

동의 자아개념은 11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75년 3월에 출생한 115명(남 64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28년간 지속해온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계획’(이성진·김광웅, 1976a)에 따라 수행된 장기종단연구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115명의 종단적 연구 자료 중에서, 아동이 성장하여 3세가 된 6차부터 11세가 된 18차까지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68명(남 38명, 여 30명)이다. 각 변인들의 측정시기는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친구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대상 아동들이 9세·10세·11세 일 때 각각 측정한 ‘아동의 행동특성과 학습발달에 대

<표 1> 측정변인 및 측정시기

측정시기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친구관계	시기구분
3세	○			학령전
6세	○			
7세		○		초등 1
9세			○	초등 3
10세		○	○	초등 4
11세			○	초등 5

※ 기존에 이미 자료수집이 완료된 연구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자료가 수집된 시점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 교사용 질문지'중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9세 때 친구관계 문항은 18문항이 사용되었고, 10세 및 11세 때 친구관계 문항은 21문항이 사용되었다. 종단연구 검사요강에 따르면, '친구관계' 하위요인은 9세 때 '협동심', '경쟁심', '양보심', '공격성', '지도력' 등 5개 요인이며, 10세 및 11세 때 '협동심', '경쟁심', '양보심', '공격성', '지도력', '사교성', '사귀는 친구양상' 등 7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연령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들 중 동일한 요인들을 뽑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친구관계의 경우 하위요인의 수가 3개 일 때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 협동심, 양보심, 공격성에 비해 요인 부하량 수치가 낮은 '경쟁심', '지도력' 요인을 제외한 '협동심', '양보심', '공격성' 등 3개의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세의 경우 18문항 중 9문항이, 10세 및 11세의 경우 21문항 중 9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해 교사가 '그렇다'(3점), '그저 그렇다'(2점), '아니다'(1점)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각 시기별 대인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9세 때 친구관계는 Cronbach's α =.80, 10세 때 친구관계는 Cronbach's α =.87, 11세 때 친구관계는 Cronbach's α =.75로서 신뢰할 만 하다.

2)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연구대상 아동들이 3세 및 6세 일 때 측정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Wolf (1964)의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모형을 한

국의 문화적 배경과 취학 전 아동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검사의 내용은 심리적 환경변인으로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 언어발달을 위한 압력 및 정서적 지원의 3개 하위검사 각 25개 문항씩 75개 문항과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1개 하위검사 17개 문항의 총 92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3).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계획(이성진·김광웅, 1976a)에 따라 이 검사의 심리적 환경 부분의 3개 하위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3점)', '그저 그렇다(2점)', '아니다(1점)'의 3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검사의 심리적 환경부분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로서 Cronbach's α =.89이고 각 하위검사의 신뢰도 역시 반분신뢰도로서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은 Cronbach's α =.67이고 언어발달을 위한 압력은 Cronbach's α =.81이며 정서적 지원은 Cronbach's α =.56이다.

3)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문항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대상 아동들이 7세 및 10세 일 때 측정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즉, 7세 때 측정된 '아동의 정의적 영역·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에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에 관한 질문지와 10세 때 측정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에서 7세 때 측정된 문항과 동일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종단연구 검사요강에 따르면, 이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으로, 총 6개 요인이 포함되었는데, 즉, '신체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도덕적 자아', '자기행동 특성 및 경향', '자아

수용 및 존중'이다. 응답은 '예(2점)', '아니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의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7세 때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8이고, 10세 때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7이다.

3. 분석전략

Crano와 Mendoza(1987)는 인과관계의 추론을 위해서는 실험연구가 최선이지만 실험에 의한 재현(replication)이 불가능한 현실세계에서의 인과관계 탐색의 대안은 시간적 선후에 기초한 모형의 설정과 이를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시간적 선후가 분명한 자료는 종단적 연구자료로서 Crano와 Mendoza(1987)는 Berkeley Growth Study의 자료를 이용하여 53명의 사례수로 8개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요컨대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와 추정하려는 모수치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인다면 적은 수의 사례수로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4. 자료분석

3세에서 11세까지의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4.0¹⁾을 이

1) 다변량분석에 사용되는 통계패키지는 LISREL, EQS, AMOS가 있는데, 그 중에서 AMOS 4.0을 선택한 것은 다른 통계패키지보다 불완전 자료(missing data) 처리가 매우 쉽고 비교적 완벽하기 때문이다. 불완전자료가 빈번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소실된 자료를 정확하게 추정하게 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식을 제공하는 AMOS가 효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간 상관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1)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9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그림 1>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로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9세 때 친구관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상관계수를 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9세 때 친구관계간 상관계수는 .04~.25로 나타났고,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9세 때 친구관계간 상관계수는 .00~.32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9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9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자기행동 특성 및 경향과 협동심이 유의한 정적상관($r=.32, p<.05$)이 나타났다.

2)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0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로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10세 때 친구관계와 어느 정도

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세희(2000-I, pp. 23-24)참조.

〈표 2〉 측정변인들간 상관계수

(N=68)

	3세 성취	3세 언어	3세 정서	7세 신체	7세 사회	7세 가정	7세 도덕	7세 존중	7세 행동	9세 협동	9세 양보	9세 공격
성취	1.00											
언어	.78*	1.00										
정서	.52*	.56*	1.00									
신체	.29*	.21	.11	1.00								
사회	.05	.16	.01	.33*	1.00							
가정	.27*	.11	.27*	.30*	.20*	1.00						
도덕	-.08	-.05	-.06	.33*	.44*	.38*	1.00					
존중	-.01	.07	.07	.41*	.54*	.23*	.61*	1.00				
행동	.08	.19	.02	.20	.44*	.17	.47*	.55*	1.00			
협동	.10	.25	-.11	.08	.02	-.00	.08	.18	.32*	1.00		
양보	.25	.04	-.09	.09	-.10	-.20	-.02	.10	.09	.42*	1.00	
공격	.13	.21	-.16	-.01	.12	-.04	-.14	-.02	-.13	-.17	-.54*	1.00

* $p < .05$

의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상관계수를 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친구관계 간 상관계수는 .11~.54로 나타났고, 7세 때 아

동의 자아개념과 10세 때 친구관계간 상관은 .00~.31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친

〈표 3〉 측정변인들간 상관계수

(N=68)

	3세 성취	3세 언어	3세 정서	7세 신체	7세 사회	7세 가정	7세 도덕	7세 존중	7세 행동	10세 협동	10세 양보	10세 공격
성취	1.00											
언어	.78*	1.00										
정서	.52*	.56*	1.00									
신체	.29*	.21	.11	1.00								
사회	.05	.16	.01	.33*	1.00							
가정	.27*	.11	.27*	.30*	.20*	1.00						
도덕	-.08	-.05	-.06	.33*	.44*	.38*	1.00					
존중	-.01	.07	.07	.41*	.54*	.23*	.61*	1.00				
행동	.08	.19	.02	.20	.44*	.17	.47*	.55*	1.00			
협동	.39*	.22	.54*	.31*	-.08	.19	.02	-.02	-.10	1.00		
양보	.25	.11	.38	.30*	-.12	.18	-.05	-.00	-.16	.80*	1.00	
공격	-.16	.19	-.17	.03	.07	-.23	-.06	-.03	.06	-.52*		1.00

* $p < .05$

구관계에서는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r=.39, p<.05$)과 정서적 지원($r=.54, p<.05$)이 협동심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0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신체적 자아와 협동심($r=.31, p<.05$) 및 양보심($r=.30, p<.05$)이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3)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1세 때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그림 3>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로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11세 때 친구관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상관계수를 보면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1세 때 친구관계간 상관계수는 .03~.40 정도로 나타났고,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1세 때 친구관계간 상관계수

는 .04~.24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1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과 협동심이 유의한 정적상관($r=.40, p<.05$)이 나타났다. 반면,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11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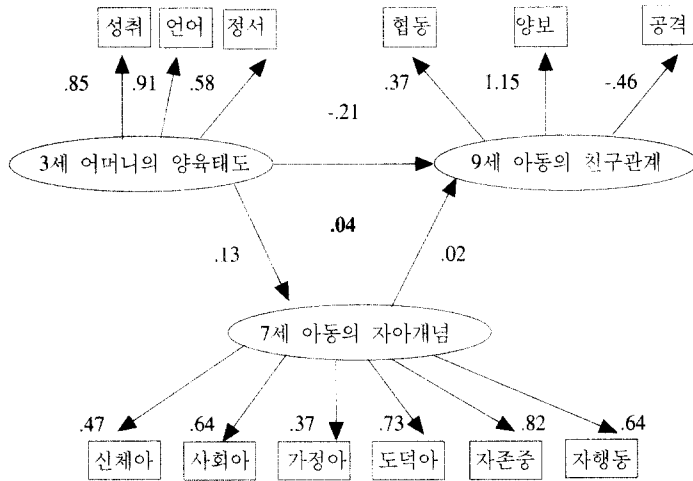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간 상관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9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7세)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10세 때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3세)와 아동의 자아개념(7세) 모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11세 때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6세)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들이 연

<표 4> 측정변인들간 상관계수

(N=68)

	6세 성취	6세 언어	6세 정서	10세 신체	10세 사회	10세 가정	10세 도덕	10세 존중	10세 행동	11세 협동	11세 양보	11세 공격
성취	1.00											
언어	.76*	1.00										
정서	.55*	.75*	1.00									
신체	.07	.06	.13	1.00								
사회	.38*	.07	-.05	-.01	1.00							
가정	-.03	.12	.17	.25	.12	1.00						
도덕	.14	.09	.04	.33*	.10	.24	1.00					
존중	.15	.14	.08	.14	.38*	.42*	.47*	1.00				
행동	.07	-.06	-.27	.20	.36*	.00	.32*	.31*	1.00			
협동	.40*	.25	.16	-.24	.19	-.22	.16	-.11	.09	1.00		
양보	.24	.31	.25	-.04	-.24	-.18	.13	-.13	-.08	.09	1.00	
공격	.05	.18	-.03	.17	.01	-.21	-.12	-.17	-.20	-.37*	-.30*	1.00

* $p<.05$



<그림 1> 9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령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관계와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적 특성의 변화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1)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9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9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구조방정식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친구관계는 이론적, 추상적 개념으로서 직접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변수(잠재변인)이며,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들이 원으로 도식화되고, 직접 관측이 가능한 측정변수(측정변인)들 -각 하위요인들- 은 잠재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이들은 사각형으로 표

시되었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에는 측정오차를 설정해주어야 하며 각 오차의 계수는 항상 1.0으로 고정되어야 하고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 중 하나를 1.0으로 고정하였다(홍세희, 2000 참조).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한 분석결과 및 모형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적합도 지수의 선정 및 그 기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선택

2)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은 χ^2 검증이었으나, 이 방법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χ^2 값이 표본크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료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적합도 지수를 가운데 TLI, CFI, RMSEA만을 선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TLI(NNFI라고도 함)는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가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모형이 잘 설명해도 그 모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하면 TLI의 값은 높지 않을 수가 있다. CFI는 90년대 가장 인기있는 지수의 하나이며, NFI가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지수의 강점은 보다

<표 5> <그림 1>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60.860	51	.994	.996	.054

하였다. <그림 1>의 모형이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의 값은 각각 .994, .996이고, RMSEA는 .054로 나타나 <그림 1>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3세)와 아동의 자아개념(7세)이 9세 때 친구관계를 4%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7세 때 아동의 자아

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13(C.R.=0.83), 9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는 -.21(C.R.=-0.93),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9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가 .02(C.R.=0.16)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9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3세)의 영향력이 아동의 자아개념(7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영향의 정도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9세 때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친구관계를 주요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10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10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모형이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적합도 지수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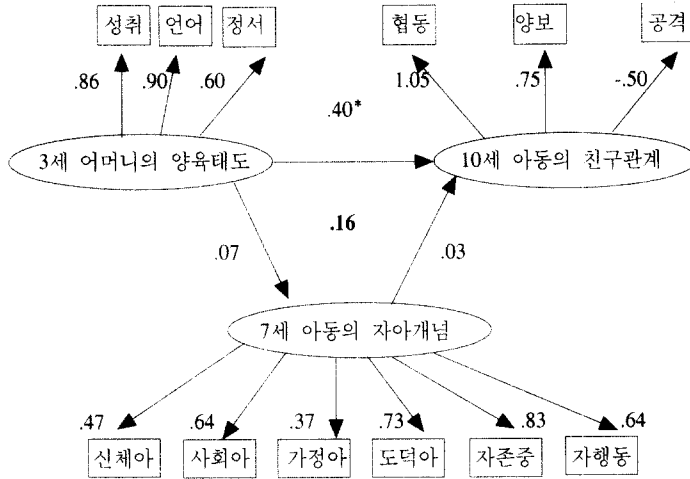
적합도 지수 TLI와 CFI의 값은 각각 .994, .996이고, RMSEA는 .056으로 나타나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3세)와 아동의 자아개념

<표 6> <그림 2>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61.652	51	.994	.996	.056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전집오류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형의 간명성이 상실된 채 불필요하게 복잡해도 CFI는 좋아질 수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 RMSEA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기저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집오류를 이용해 구해지므로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RMSEA의 공식에 자유도도 포함되므로 RMSEA는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가 너무 작을 경우, RMSEA 값은 아주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 CFI와 TL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RMSEA 값이 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므로 CFI와 TL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 CFI와 TLI :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 ▶ RMSEA :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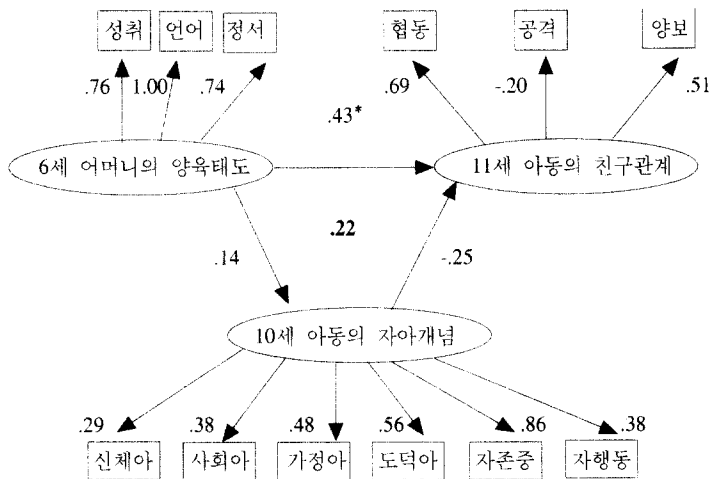


〈그림 2〉 10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7세)이 10세 때 친구관계를 16%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07(C.R.=0.44), 10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는 .40(C.R.=2.56), 7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10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가 .03(C.R.=0.19)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간 경로계수 중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서 친구관계로의 경로계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0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3세)의 영향력이 아동의 자아개념(7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며, 그 영향의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10세 때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를 주



〈그림 3〉 11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요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11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가?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11세 때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모형이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다.

적합도 지수 TLI와 CFI의 값은 각각 .984, .989이고, RMSEA는 .082로 나타나 <그림 3>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6세)와 아동의 자아개념(10세)이 11세 때 친구관계를 22%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10세 때 아동의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14(C.R.=0.71)로 나타났고, 11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는 .43(C.R.=1.86), 10세 때 자아개념이 11세 때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계수가 -.25(C.R.=-0.97)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경로계수 중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친구관계로의 경로계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11세에서도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1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6세)의 영향력이

<표 7> <그림 3>에 대한 적합도 지수

x ²	df	TLI	CFI	RMSEA
73.752	51	.984	.989	.082

아동의 자아개념(10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며, 그 영향의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10세 때와 마찬가지로 11세에서도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를 주요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이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9세 때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이 유의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세 및 11세 때 친구관계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변인의 친구관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9세 때 4%, 10세 때 16%, 11세 때 22%로 연령의 변화에 따라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변인의 전체 설명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8>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나타난 발달적 변화패턴*

	양육태도의 영향력	자아개념의 영향력	전체 설명력
9세 친구관계	-.21	.02	.04
10세 친구관계	.40	.03	.16
11세 친구관계	.43	-.25	.22

*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력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영향력에서 나타난 수치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이며 '전체 설명력'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잠재변인에 대한 전체변량에서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즉,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관계라는 변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변량을 의미한다. 회귀식에서의 R square 값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친구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아동의 자아개념(.02→.03→.25)에 비해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21→.40→.43)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대인관계 발달이 기본적으로 학령기 이전 가족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초기의 가족관계에서 구축된 대인관계의 패턴이 친구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대인관계라 볼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일부분인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의해 더 많이 예측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세에서 11세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해 주요 발달과업의 하나인 아동의 친구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히는 동시에 그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간 상관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중 아동의 자아개념이 친구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개념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행동특성 및 경향이 친구관계 하위요인 중 협동심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자기행동특성 및 경향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협동심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모두 친구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는데, 하위요인별로는 어머니의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과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아동이 신체적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협동심 및 양보심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11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어머니의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정리하자면, 9세 때 친구관계는 아동의 자아개념만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 10세 때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모두 친구관계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되었고, 11세 때 친구관계에서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10세 및 11세 때와는 달리 9세 때 친구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9세 때 친구관계의 문항 내용이 10세 및 11세 때와 약간 다른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친구관계와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적 특성의 변화가 연령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즉, 이 시기는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

험을 처음 갖는 시기로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그만큼 다양해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개념이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9세 때를 제외한 10세와 11세 때 모두 친구관계에 대해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이후 친구관계를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이후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주요 예측 변인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해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가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 온정 또는 거부적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성취동기 발달을 위한 압력, 언어 발달을 위한 압력, 정서적 지원으로 양육태도의 또 다른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의 확실한 비교와 지지는 어렵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하위요인은 다르지만 양육태도를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비교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대인관계의 양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모-자녀 관계라면서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Sullivan(195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동시에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아동 중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며, 아동 중기 이후에도 개인의 내적 실행모델로서 부모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Wentzel &

Erdley(1993), Buhrmester & Furman(1987)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친구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은 덜 한다고 보고한 Dekovic과 Janssens(1992)의 연구결과 및 부모의 방임적이고 무관심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Rubin 등(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거부당한 아동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공격적이기 쉽다고 한 Rohner(1991)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행해진 본 종단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10세 때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7년의 간격이 인과관계를 가정하기에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Van den Bergh(1990)의 연구에서 임신한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신생아기, 유아기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고, Wentzel과 Feldman(1993) 역시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듯이 7년이라는 간격으로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자아개념이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한미라, 1997; 최진희, 1999)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발달 단계상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데, 아동 중기는 자아개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기에 비해 비교적 연령의 변화에 따라 자아개념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시기(김희화, 1993)라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친구관계가 동시점에서 측정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측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측정된 자아개념이 이후 친구관계가 측정된 시점에서는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시점에서 측정된 자아개념이 후시점에서 측정된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근접한 시기의 아동의 자아개념과 친구관계간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먼 시점에서의 영향력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횡단적 접근을 시도한 장재숙(2002)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역시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 자율, 성취 지향적일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손경환(1996)의 연구결과 및 14년 동안의 종단연구(10대 후반-30대 초반)를 통해 부모-자

녀의 관계가 애정적일 때 그것이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초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한 Robert와 Bengston(1993)의 연구결과와 불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발달단계별로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 즉, 자아개념은 환경에서의 경험,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경험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기에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많은 접촉을 해온 어머니와 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친구가 중요한 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개념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와 친구 관련 변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많은 연구들(Lamborn, Mounts, Steinbergh, & Donrbusch, 1991;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을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다. 더구나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에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친구와의 경험이 갖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의 자아개념은 가족 이외에 접하게 되는 중요한 타인들, 즉 친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결국 가정을 벗어난 확장된 사회적 관계의 틀과 성취에 근거하여 형성된다(송인섭, 1998)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 사이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모형을 횡단적 방법으로 조사한 장재숙(2002)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다. 즉,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역할에 대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곧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현재 시점에서 세 가지 변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더 분명한 상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의 자아개념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현재 아동의 친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아동의 자아개념이 매개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이후 친구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해 아동의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밝혀짐으로써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간 직접적인 관계만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친구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라는 환경적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시간적 간격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방법들 대부분이 횡단적 접근으로 연속적인 시간선상에서의 개인 내 변화에 대한 탐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친구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들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발달적 변화패턴을 발견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을 넘어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자료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 동시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다른 세대에 일반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구대상의 동질성 문제이다. 둘째,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초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변인(아동의 기질, 부부관계의 질 등)들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모형의 설명력에 제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변인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계가 있었고, 또한 사례수가 공변량구조 분석을 하기에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모형 설정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기종단자료는 다양한 변인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수집된 것으로 그 자료의 존재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를 통한 연구수행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의 연구들은 인간발달에 대해 횡단자료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자료를 이용한 도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횡단자료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보연(2000).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9). 아동의 자아개념이 담임교사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김경연(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과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34(5), 1-12.
- 손경환(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유은숙(2001).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간의 사회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김광웅(1976a).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계획. *행동과학연구* 9(5), 통권79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장재숙(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 정범모·이성진(1985). *학습성취의 요인*. 서울: 교육출판사.
- 최진희(1999).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73). *가정환경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함미라(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재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심리현상의 분석: 집단 변화 및 심리특성에 관한 다면인사료 분석 방법.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방법론 워크샵.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uhrmester, D., &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1992). Family - 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rano, W. D., & Mendoza, J. L.(1987). Maternal Factors that influence children's positive behavior : Demomnstration of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selected data from the Berkeley Growth Study. *Child Development*, 58, 38-48.
- Dekovic, J. M., & Janssens,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Goodman, S. H., Donna, B., & Lynch, M. E.(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2.
- Harter, S.(1983). The self-concept. In E. M. Hetherington (Eds),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Hartup, W. W., & Sancilio, M. F.(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chopler & G. B. Mesibor (Eds.), *Social behavior in autism*(pp. 61-80). New York : Plenum.
- Heider, 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Kahle, L. R., Kullka, R. A., & Klingel, D. M.(1982). Low dolescent Self-Esteem Leads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A Test of Social-Adap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pp 496-502.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 Doum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0.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1982).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35-151). New York : Wiley-Interscience.
- Robert, L., & Bengston, V. L.(1993).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4).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Rothbard, J. C., & Shaver, P. R.(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1-71). New York : Guilford Press.
- Rubin, K. H., Stewart, S., & Chen, X.(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 1, pp. 255-284). Hillsdale, NJ : Erlbaum.
- Schaefer, E. S., Clair, K. L. St., & Sayer, S. L.(1987). Child Self-Reports and Perceptions of Parent and Teacher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Baltimore, MD, April 23-26).
- Sullivan, H. S.(1946). *Conception of Modern Psychiatry, The First William Alanson White Memorial Lectures*.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W.W. Norton.
- Van den Bergh., B. R. H.(1990). The influence of maternal emotions during pregnancy on fetal and neonatal behavior. *Pre- and Peri-Natal Psychology*, 5, 119-130.
- Wentzel, K. R., & Erdley, C. A.(1993). Strategies for making friends :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19-826.
- Wolf, R. M.(1964).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related to intelligenc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15일 채택